

광주 내년 문화수도 틀 갖추다

市, 공예문화 클러스터 등 44개 사업 2,137억원 투입

내년부터 광주를 아시아 공예산업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공예문화산업 클러스터사업이 본격추진된다. 아시아 대표 도시의 역사를 전시하는 공간인 아시아 도시역사 박물관 건립, 사적 국제 문화타운 조성사업도 본격화된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는 3일 오후 박광대 시장 주재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실시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

용을 뼈대로 한 '2010년도 연차별 실시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2010 연차별 실시계획안은 관련부서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으며 44개 사업에 2천137억원이 투입된다.
2010년 주요 신규사업으로 시작국제문화타운과 공예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 아시아 도시역사 박물관 건립 등에 모두 2백70억 원이 반영됐다.

올해 주요사업으로는 아시아 문화상징디자인모델구역과 아시아전통문화공간 조성 등 5건에 67억 원이, 문화콘텐츠연구원 설립과 광(光) 예술장르 개발, 문화상품복합단지 타당성 조사 등 7건에 634억 원이 배정됐다.
또 문화교류 및 예술전문인력 양성, 아시아 도시 간 문화교류협력 등 7건에 42억 원이 투입된다.

계속사업으로는 아시아문화예술특화지구 조성, 광주국제공연예술제,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등 18건에 모두 907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광주시는 다음달 31일 이 같은 안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뒤 예산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알림 **캐츠(CATS) 한국어 공연**



내일부터 티켓 발매!! 2월 5일(목) 오후 2시

4월 21일(화)~26일(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광주일보사는 세계적인 뮤지컬 '캐츠' 한국어 공연을 개최합니다. [뮤지컬계의 리드스 온] 앤드루 로이드 웨버가 작곡한 '캐츠'는 '20여개의 이름' 등 11개의 세계 4대 뮤지컬로 꼽히는 작품으로 전 세계 300여 도시에서 6천 500만명의 관객을 사로잡은 히트 뮤지컬입니다.
이번에 광주시는 한국어 버전은 '캐츠' 제작사와 최초로 정식 라이선스를 맺고 만든 뮤지컬로 지난해 서울 공연에서만 10만명의 관객을 모으며 성공을 거둔 기록입니다.
한편 배우로 자질을 갖춘 배우들을 비롯하여 수백 대의 세트, 정장을 입고 신발만 1만여 켤레에 달하는 외국 배우 못지않은 뛰어난 가창력과 춤으로 관객들을 사로잡는 게요사키에, 뮤지컬계의 전설로 불립니다.
'캐츠'는 광주공연은 뮤지컬 넘버와 혁신적인 춤, 화려한 조명과 무대가 어우러진 한국판 '캐츠' 공연으로 생동감 넘치는 엔터테인먼트를 선사합니다.

- **일** 시: 2009년 4월 21일(화)~26일(일)
월요일 오후 8시 / 토요일 3시, 8시 / 일요일 3시
- **장** 소: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 **주** 회: 광주일보 & KCTV
- **주** 권: KCTV
- **공연 문의:** 1062(220-0541), 3588-0785
- **인터넷 발매:** 티켓마루(www.ticketmaru.co.kr) / 옥션티켓, 티켓링크

광주 학부모 '교육행복도' 낮다

50.2점...전국 10위
전남은 51.4점 5위

광주지역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교육행복도'는 50.2점으로 사실상 '낙제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3일 비영리 민간교육단체인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KACE)가 패널리스트에 의뢰해 전국 10개 시도 중·고생 학부모 5천217명(광주 250명, 전남 2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학부모들이 평가한 '교육행복도'는 100점 만점에 50.4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광역시·도별로는 제주도가 63점으로 1위, 전남이 51.4점으로

5위, 광주가 50.2점으로 10위, 경상북도가 49점으로 최하위를 차지했다.
특히 사교육 만족도 조사에선 전국 평균점은 55.3점인데 반해 광주는 54.1점으로 최하위를, 전남은 54.7점으로 14위를 기록했다.
교육정책 만족도에서도 광주는 37.6점으로 15위, 전남은 40.5점으로 9위에 머무르는 등 교육정책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전국 평균점이 62.4점인 평생 교육 만족도에선 전남이 65.6점으로 1위를, 광주는 62.8

점으로 8위에 올랐다.
전국 9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교육행복도' 조사에선 광주 남구가 9위(56.3점), 순천시가 18위(54.5점) 등 상위권에 오른 반면 광주 북구는 54위(49.5점)에 그쳤다.
이 밖에 전체 응답자 중 88%는 현재 자녀들에게 사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대답했다.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로는 '선행 학습을 통한 학교수업 준비'(53%), '특목고나 대학 진학을 위한 학력향상'(23.8%), '학교수업을

따라가지 못해서 보충수업 필요'(17.1%) 등을 들었다. 사교육비 규모는 가구당 월평균 74만 원, 자녀 1인당 45만 원으로 가구총지출비용 대비 26%를 차지했다. 구체적인 초·중·고생 38만 원, 중학생 44만 원, 고등학생 53만 원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교육비 부담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KACE측은 "교육행복도가 50.4점이라는 것은 국민이 교육 전반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北 대포동 2호 발사 징후 포착

동창리 기지로 옮긴 듯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평북 철산군 동창리의 미사일 기지에서 대포동 2호 미사일(사정 4천300km~6천km)을 발사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하고 정밀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5면)
정부의 한 소식통은 3일 "정보당국이 최근 위성을 통해 대형 '일통형 물체'를 실은 열차가 평북의 한 군수공

장에서 동창리 인근으로 향하는 사실을 포착했다"면서 "이 물체의 길이가 길어 일단 미사일이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이 물체가 미사일이 맞다면 대포동 2호일 가능성이 크다"며 "발사대에 장착하는 기간 등을 감안하면 1~2달 내에 발사 준비를 마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현재 이 원통형 물체는 동창리 기지로 이송된 것으로

안다"면서 "물체가 덮개에 위장돼 있어 앞으로 정밀 식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보당국은 지난달 말께 북측의 이런 동향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북측의 군사동향에 대해 일일이 설명해 줄 수 없다"면서도 "현재 군은 북측의(미사일과 관련한) 동향을 정밀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남부대학교
41-1 남부대길 100 광주광역시 남구 남부동 1-1
TEL: 062-270-1111 FAX: 062-270-1112

전남과학대학
41-1 남부대길 100 광주광역시 남구 남부동 1-1
TEL: 062-270-1111 FAX: 062-270-1112

디스크?
수술없이 치료하는
척추 추나 클리닉

정연한의원
광주 성무지구 M타워 5층
TEL: 062-270-1111 FAX: 062-270-1112

한국, 2018·2022 월드컵 유치 신청

한국이 2018년이나 202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유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관련기사 18면)
대한축구협회는 국제축구연맹(FIFA)에 2018년 또는 2022년 월드컵 축구대회 유치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3일 발표했다. 이로써 2002년 월드컵을 일본과 공동개최했던 한국은 두 번째 월드컵 유치와 함께 첫 단독 개최를 노리게 됐다.
대한축구협회 조종연 회장은 "2018년 대회나 2022년 대회 중 하나는 아시아권 국가에 배정될 수 있어 유치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미 2002년 대회를 개최해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대한민국은 두 번째 월드컵 유치와 함께 첫 단독 개최를 노리게 됐다.
대한축구협회 조종연 회장은 "2018년 대회나 2022년 대회 중 하나는 아시아권 국가에 배정될 수 있어 유치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미 2002년 대회를 개최해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도 대회를 치를 수 있다고 판단해 도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치하기까지 과정이 쉽지 않고 유치 경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일본도 유치전에 뛰어들었고 인도네시아, 카타르 등 아시아 국가들이 대거 경쟁에 나섰다. 또 축구 종가인 잉글랜드와 공동개최를 추진하는 포르투갈-스페인, 네덜란드-벨기에, 그리고 러시아 등 유럽 국가와 미국, 멕시코, 호주 등도 2018년 또는 2022년 대회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연합뉴스

규조이 여행사
2009년 2월 4일

제주 2박3일 패키지 (선박) + 제주도별
78,000 (1인 기준)
*호텔: 3/1/3/15-전패

일본 4박5일 패키지 (선박) + 제주도별
379,000 (1인 기준)
*호텔: 3/1/3/15-전패

유럽 4박5일 패키지 (선박) + 제주도별
479,000 (1인 기준)
*호텔: 3/1/3/15-전패

미국 4박5일 패키지 (선박) + 제주도별
499,000 (1인 기준)
*호텔: 3/1/3/15-전패

대만 4박5일 패키지 (선박) + 제주도별
269,000 (1인 기준)
*호텔: 3/1/3/15-전패

대만 2박3일 패키지 (선박) + 제주도별
389,000 (1인 기준)
*호텔: 3/1/3/15-전패